

누가복음 9-10  
Tape #C2532  
By Chuck Smith

누가복음 9장을 펴십시오.

여기에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자를 고치도록 12 제자들을 보내는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때와 70 인을 보냈던 때를 혼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0장을 시작할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2 제자를 갈릴리 전역에 보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갈수있는 먼곳까지 여행하려면 그들이 빛처럼 여행해야 합니다. 그 뜻은 그들이 빨리 여행하게 될것을 말하며 이 기간에 가능한 먼곳 까지 나아가는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들을 함께 모은 다음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후 그는 그들이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병든자를 고치도록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9:1-9).

그 소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날 재판을 받기위해 서실때 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낼때 그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전대나 성경이나 빵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무엇이든지 주는것을 먹으며 사람들로 부터 받으라고 분부 하셨습니다. “일꾼이 그의 삯을 받는것이 합당하다” 고 그가 말씀 하셨습니다.

빛처럼 여행한다는것은 그들이 해야할 여행을 빨리 할수 있고 멀리 여행 할수있는것을 말합니다. 그의 사명은 하늘 나라를 전파 하는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전파하는일에 따르는 부수적인 임무는 병자를 고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병자를 낫게하는것이 아니고 또한 병을 고치는것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임무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것은 임무에 따른 부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전 인적으로 연관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필요한 것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제가 교회의 임무가 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의 임무에 부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것, 그것이 임무입니다. 우리는 닥아올 영광스러운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필요를 무시 할수 없습니다. 지역 사회안에 있는 교회의 사회사업은 우리의 임무에 부수적인것이며 그것이 결코 교회의 주 임무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메시지를 사회 사업과 바꾸어서 사회복음이 되었으며 그들은 어느 하나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돈도 없고 두벌 옷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들은 대단히 부요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권능이란 단어는 *dunamis* (두나미스) 즉 에너지 또는 활동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사용할수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그들의 사역에 대단히 효과적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한 말이 떠돌았으며 그 말이 헤롯에게 까지 전해 졌습니다. 그는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사건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보기 원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9:10).*

제자들이 그들의 여행에서 돌아 왔습니다. 그들이 피곤했으므로 호수 건너편에 가서 쉬면서  
그들만의 시간을 가지는게 좋으리라고 주께서 생각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자들의 여행이  
어떠하였는지 보고도 받고 모든것을 정리 할수있는 기회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 벳새이다  
마을에서 가까운 한적한곳에 갔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9:11).*

벳새이다는 가버나움에서 5 마일 정도 떨어진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곳이며 그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 가버나움을 떠나 그쪽을 향해 나아 갑니다. 시야가 밝기때문에 배가 가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배가 어느방향으로 가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 어느곳에 가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벳새이다를 향해 가는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북쪽 해안을 거쳐서 뛰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네들 어딜가나?”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제자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위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려 했으나 큰 무리가 그들을 영접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하고도 오 천명이었습니다. 무리 전부가 약 15,000 명쯤 되리라고 추산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멀리 가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려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갔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9:11)*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왕국을 공부 했습니다. 결석한 분들은 테잎을 구입 하셔서 듣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중심 메시지 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것은 사람들이 가서 살게될 왕국이  
있다는것이며 예수께서 이것을 선포 하셨습니다. 그것은 빛과 생명의 나라 입니다. 그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과 사랑의 나라 입니다. 그리고 각개인이 하나님을 그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자신을 굴복할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전부 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하였고 그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 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 들이니이다 (9:11-12).

이 근처에는 맥도날드 햄버그 집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수 없삽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 두 바구니를 거두니라 (9:13-17).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공부할때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 했습니다. 내 생각엔 언급했던것보다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의 북쪽 끝에 있는 벳세이다 에서40 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음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는 방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벳세이다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신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다음 장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며 오늘날 그 지역을 벤야스 (Banyas) 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혈몬 산 기슭에 있으며 바위에서 거대한 샘물이 솟아나와 요단 강이 시작 되는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벤야스에 가서 혈몬산의 출발점이 되는 바로 벤야스에서 요단강이 시작되는것을 보는것은 재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동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의 상단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직 그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갈릴리 주변의 군중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떠나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 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보다 예수의 기도 생활을 아주 주의깊게 지적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 났을때 예수께서 기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적한곳이 누가복음에 일곱 군데나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들을 보고 하는데 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강조점은 예수의 인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조점이 예수의 인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것 중의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중요하게 생각 하셨던것과 강요해야할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또한 사람이신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기도 생활을 조심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9:18);

재미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배반적인것 같이 들립니다. 혼자 (따로) 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할때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주 개인적인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교제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제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때로는 군중속에서도 기도에서 따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것이 힘을 얻게 하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정에 쫓겨서 그는 따로 기도 했으며 그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9:18)*

인기 있는 견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9:19).*

이러한 이야기들을 헤롯이 들은것입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들었거나 그가 엘리야 였다고 들었거나 아니면 선지자중의 한사람이 다시 살아 났다고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9:20-21).*

사람들이 “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의심 할것입니다. 내가 믿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메시아 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자신들도 이시점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은 왕국을 건설하여 세계 열방을 넘어 뜨리는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그의 죽음으로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있는것도 이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된다는 뜻을 완전히 이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에게도 알리지 말라. 너희 자신도 그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도 이것에 대하여 알리지 말라” 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명이 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권을세워 로마의 정권을 뒤집거나 세계를 굴복케 함으로써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그의 왕국은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 이루어 질것임도 그는 아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 할수도 없었고 이해 할려고도 하지않았으며 예수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실때 까지 이해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파괴 시키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나가서 “오, 메시아가 여기 계신다” 라고 말한다면,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멸망 시킬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를 말하는것은 시기 창조 이며 부활후에 이 분이 메시아 였다는것을 선포 할수 있습니다. 이젠 그들이 그의 죽음에서 성취된 성경 말씀을 지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직 시기가 아니니라. 너희 자신들도 이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9:22),*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 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오오,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통치 하실텐데 제가 주님의 오른 편에 앉게 됩니까? 저는 주님의 왼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식을 전하십니다 “너희 말이 옳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아 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9:22).

비록 그들이 이해 할수도 없고 감당할수 없을찌라도 주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실상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오, 주님, 말도 안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주님을 책망 했습니다. 그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까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너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도 이해 하지 못하고 있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23-26).

이젠 주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진리를 더 많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 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멸시받고 거절당하며 죽음을 당할것이나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리라 그때 왕국이 이루어지며 그때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만일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즉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올것이니라.” 이것들이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들 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것은 이기주의 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삶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자기 중심 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주고 싶고 또 동료를 도와 주고 싶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할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것은 우리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것도 포함 됩니다.

예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 시옵소서.”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 지이다.” 그것은 내 자신을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 하는것입니다.

세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것입니다. 그것들이 제자가되는 필수조건 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제자가 되기위한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네 자신의 목적지를 정하려고 하고, 네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또 네 자신의 욕망을 충족 시키려 한다면 너는 목숨을 잃을것이요. 만일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너의 삶에 대한 모든것을 발견 하리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때 참된 삶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그리스도안에서 잃는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할때 삶의 참뜻과 목적을 진실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에 두셨습니까? 당신이 나가서 모든 욕망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욕망을 쫓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수있는 모든 열락을 찾기위해 열락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신것입니까? 그럴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욕신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 살아 있지만 실제로 죽은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열락과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기를 추구하는자는 그의 생명을 잃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 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작할때 당신은 대단히 만족스럽고 흡족한 삶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내 야망은 부자가 되는것이고 내 소원은 내가 갖고 싶은것을 다 가지는거야” 라고 말할수 있겠지요. 여보시요, 잠깐만, 만일 그것을 성취했고 온 천하를 얻었으나 당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면 무슨 유익 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26)*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입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그 뜻을 완전히 깨달을때까지 당분간 그것을 비밀로 지켜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나 보좌를 이 지상에 당장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이 있게 되며 그후에 봉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26).*

그러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부끄러워 하지않고 충성 스텝게 섬기면 주님도 당신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실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9:27).*

이제 그들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9:28).*

그 산에 올라간 목적은 기도하려는것 이었다고 누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기도 생활에 관한 이런 아름다운 통찰력을 보여 줍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9:29).*

“광채가 난다 (glistening)” 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고전 영어 단어이며 헬라어로는 빛이난다 또는 섬광으로 비친다는 뜻입니다. 그의 옷이 섬광 처럼 비쳤습니다. 섬광처럼 빛난것은 빛이 그 옷 자체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중에 헬라어로 “변형 (metamorphosis)” 이라는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변형은 몸의 전체적 변화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중에 계시는 주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주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고 말씀 하셨을때 그들이 영광중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를 그림 같이 아름다운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은 그의 얼굴이 해가 밝게 비취는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옷은 섬광이 비취는것 처럼 빛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9:30-31).*

별세한다는 말은 떠나가는것을 말합니다. 그 의 이 땅에서의 떠남은 예루살렘에 성취하실 영광 중에 돌아 오실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야, 모세를 만나보렴, 이 사람이 베드로 일세” 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친구들을 알아 볼수 있을까요? 거기서 서로를 알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천국에 간후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바보 같이 되지 않도록 되기를 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안다면 거기서도 서로를 알아 볼수 있으리라고 확신 합니다. “오, 나는 성경 말씀을 원합니다.” 좋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전 13:10, 12). 내가 나를 아는것 처럼 당신을 알아 볼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무라도 서로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DNA 를 심거나 무엇이든지 내 양심에 집어 넣으셔서 당장에 자동적으로 모두를 알아보게 하실것입니다. 내가 “오,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다윗이 저기에 있네” 라고 말할것이며 당신도 마찬가지로 알아보실것입니다.

아무도 모세나 엘리야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직관적인 지식이 있기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수있습니다. 재미 있는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 있었다는것입니다. 또 재미 있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대화하고 있었으며 제자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 볼수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것입니다.

*베드로와 밋 함께 있는 자들이 곧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밋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9:32).*

예수께서 기도하실때 베드로는 잠을 잔것 같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상상 이나 할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가파르고 한참 올라가야하는 험몬산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피곤했겠죠. 거기서 예수께서는 기도 하시고 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음성을 들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깬것 같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 하시지?” 그리고 그들이 바라 보았을때 주님이 영광스런 모양으로 변화되신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섬광처럼 빛나고 거기에 율법을 준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9:33),*

며칠전에 예수께서 그의 죽으실것을 그들에게 말했던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버린바 되리라.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있는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죠. 여기에 초막 세개를 짓겠나이다. 이곳을 떠나지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지 마소서.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게 좋겠나이다. 여기에 초막 세개를 지읍시다. 만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주님, 여기 머물러 있는것이 좋겠나이다.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9:33).*

다른 복음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거든 입을 다무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무슨 말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잠잠한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 짐작으로는 베드로의 생각이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되게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건의 현장을 표시하기위해 초막을 지은것입니다. 성지에 가는것을 실망 시키는것 중의 하나는 성경의 사건들의 현장이라고 생각 되는곳곳마다 모두 교회를 지어 놓았다는것입니다. 위엄을 줄만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신교회 (Church of Nativity) 에 들어 가는것보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 놀라울것입니다. 그것이 매번의 방문을 망칩니다. 당신이 들어가 모든 번쩍이는 쇠 불이와 탑들과 손을 내미는 제사장들을 볼것인데 어쨌던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짐작으론 베드로가 그 모든 풍습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주여, 바로 여기에 초막을 지어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념합시다. 실제로 그들중의 세 사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 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9:34-35).*

이제 누가 거기에 나타났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했던 모세 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를 보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대변한 사람이었으며 선지자를 대표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들었으나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 1:1-2).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이나 선지자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9:36).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때 그들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 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줄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9:37-44).

이 말을 귀에 담아둡시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 고난 받는것을 받아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 우리라.”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9:45-46).

이것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십자가와 버림받음과 그의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수 있는 위대해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9:47-48).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거든 종이 되기를 배우십시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9:49).

당파와 종파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9:50).

우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하지말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은 “아니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거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51),*

그래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돌아 오셔야 했으며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남쪽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통상 취하는 노선은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올단 계곡을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오십니다.

주님의 승천하실 기약이 차매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 하셨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9:52).*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실 곳을 찾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위해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다. 그 이유는 분명히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여지도 없이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 산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마리아인들은 희생제물로 양을 그리스 산에서 드려서 유월절을 지키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지 약 700 명 정도의 사마리아인 밖에 남지 않았습다. 그들의 대부분은 바보 같은 전통을 따릅니다. 아직도 사마리아인들 끼리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의 멸종 되었습니다. 오늘날 단지 200 명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림 산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제사를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은곳 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지켰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원한과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길에 나타나셨을때 그들은 그가 마을에 들어오는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다. 그들은 그에게 전혀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았습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9:54),*

이제 왜 예수께서 요한과 야곱을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는지 알겠습니다.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엘리야가 한것처럼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9:54).*

물론 이 두사람은 변화산상에 있었고 엘리야를 보았으며 선지자가 행한일로 인해 다시 감명을 받은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것은 “주님, 왜 저들을 없애 버리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한 두어가지 맛을 줘 보여 주세요. 주님을 쌀쌀하게 대하는 저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며 ‘너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하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9:55-56).*

여기서 예수는 다시 한번 그가 오신 목적을 알립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오셨는가? 그가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여러 곳에서 그가 오신 목적을 선언 했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중의 하나는 잃은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온것은 죄인을 정죄하려함도 아니요 멸하려하는것도 아니며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성탄절에 그가 오신 이유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흑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9:56-57).*

예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 하시는것은 “이 친구들아,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아라” 는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앞에 올때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은후 “오 주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잠간만 기다려, 비용을 먼저 계산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때 주님은 “비용을 계산해보라” 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9:58).*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비용이 드는것을 기억하라.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는가? 기꺼이 값을 치루겠는가?” 그것을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값을 측정해보고 결정하라. 값을 계산하여 고려해 보기전에 출발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좃으라 하시니 (9:59)*

첫째 사람은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말렸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에게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겐 “나를 따르라” 고 주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9:59)*

여기에 **나로 먼저 (Me first)** 라는 말이 여기 있는걸 보면 그가 예수를 따를수없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로 먼저** 라는 사람은 예수를 따를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를 따르려면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나로 먼저”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를 따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로 먼저** 허락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허락할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당신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 해야하며 예수가 먼저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 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9:60).

당신은 “와와, 예수께서 냉정하시고 감정도 없으시구먼. 이 사람으로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네.” 그러나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장사케 하소서” 라는 말은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잠시동안 집에 있겠으며 아버지가 별세하거든 내가 오겠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그의 아버지가 별세하여 묻을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사람이 죽은 후 2시간 이내에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라고 말할때 실제로 그 사람은 “언젠가 내가 먼저 해야할 몇가지 일이 있고 또 언젠가 내가 그것을 할것입니다. 나로 먼저” 라고 말하는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9:61).

오, 정신 차리고 교훈 좀 배워! 그럴수는 없어. 내가 주님을 따를때 ‘나로 먼저’ 는 있을수 없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9:61-62).

주님을 따르르면 헌신 즉 예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값을 치뤄야 하며 그것이 가족 관계가 될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갈수 없습니다.

## Chapter 10

이제 10장에서 9장 12절과 대조되는 70인의 파송에 관한것을 읽습니다.

이 후에 (10:1)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주께서 달리 칠십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10:1).

그들은 선발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 지나가실 여러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찌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군이 그 값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10:2-7).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군이 그 값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8-9).

그들은 주님보다 앞서 가야할 사자들로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일과 병자를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을 알라 하라 (10:10-11).

하늘나라 가까이 왔는데도 하늘 나라에 들어간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슬픈 일입니다. 헤롯 아그립바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도게 할 뻔하였도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그들 앞에서 먼지를 떨면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 (즉 닥아오는 심판날) 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0:12).

빛을 반대하는 죄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 하실 것입니다.

소돔이 이 도시 보다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보다 오히려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소돔은 그만큼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10:13)

이 두 동네는 예수께서 사역 하셨던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빛이 왔으나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0:13).

느부갓네살과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들이 차례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이 받은 심판이 너희가 받는 심판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참으로 흥미 있는것은 고라신과 벳사이다는 두 도시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공공연한 비난에서 예수께서는 “화 있을 진저, 가버나움아” 라고 하셨습니다. 가버나움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몇년간 벳사이다의 유적을 발견 했습니다. 벳사이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도시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그 후에 심판이 벳세이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10:15-16)*

이제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 하십니다. 가면서 여전히 그들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10:16).*

주께서 가서 주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는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 을 미워한다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대표하는 그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주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당신에게 배출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미워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내신 그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분과 함께하는것입니다.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10:17)*

주께서 저들을 미리 보내셨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참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0:17).*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스리는 권위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10:18-19).*

당신의 마음에 그것을 간직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당신은 원수의 능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두움의 주관자 얼굴을 찌푸리나 우리는 그를 두려워 떨지 않으며 주의 한마디 말씀으로 그는 넘어지네.” 그 이름, 모든 말씀위의 말씀, 그이름은 능력있는 예수의 이름이라. 그러나 교회가 종종 어두움의 세력앞에 떨고 있는것을 봅니다. 우리는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제압할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10:19).

바울이 파선 후에 해안에 밀려올려졌을때를 기억하시겠죠. 거기에 불을 피운후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있는지라 원주민들이 말하되 “아아,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신이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곧 발작을 일으키면서 죽을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거기 앉아서 불을 쬐면서 이야기 하고 있는결본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이 사람은 신임에 틀림없다. 아무것도 그를 해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것이 끝날때까지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닥치지 않을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내 삶에 목적을 두셨고 그 목적이 완성될때 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존 하실것입니다. 이제 나는 밖에 나가서 무모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100 마일로 달리면서 말하기를 “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셔, 내겐 아무일도 일어 나지 않을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 될때까진 아무것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할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뇌와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이 완성될때까지는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 나지 않을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대 환난중에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하는 날이 끝났을때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죽일수 있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임기가 찰때 까지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의 간증과 증거가 끝날때 까지 나는 파괴 할수 없는 존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때 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전하실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 증거가 끝나는 순간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즉시 나를 집으로 데려 가실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나의 증거가 끝나는 그 때 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오래동안 여기에 남겨 두시는 이유는 그 목적들을 끝마치게 하심입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 될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것입니다. 반드시 이 근처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근처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러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압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 갈 뿐입니다. 아시는대로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복음을 전과 해야하는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그의 지시에 따라 그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위하여 하라는 일들을 준비 하시기 위해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끝날때 나는 집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너희를 해 할수 없노라.

오, 재미 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요한과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 당했습니다. 그들중 어떤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 악독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일들은 그들의 증거가 다 끝난후에야 일어난것입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반대하며 예수께서 말씀 하셨던 사람중의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것을 헤롯이 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밤 주의 한 천사가 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깨우며 말하기를 “베드로야, 신발을 신고 여기를 벗어나자”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앞문이 자동적으로 열릴때 천사를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난후 문은 닫겼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거리에 나오자 천사는 떠나 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밖에 나왔군, 아아.” 그리고는 교회가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불쌍한 베드로를 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더니 젊은 소녀가 문에 와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나 베드로야” 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너무나 흥분해서 문도 열어 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오 하나님이 불쌍한 베드로를 도우셨습니다. 베드로가 문앞에 있어요” 라고 말했다니 그들은 “네가 유령을 본게 틀림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석방 시킨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끝장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하나님 증거가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처형하러 왔을때 그는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탁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처형하려는줄 압니다. 그러나 나를 바로 십자가에 처형 시키지 말고 십자가에 끼꾸로 처형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끼꾸로 달려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의 증거가 끝날때 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 하십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10:20);*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것으로 기뻐하지말고 현상을 보고 기뻐 하지말며 당신이 보는 현상으로 인해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10:20).*

만일 무슨일로 인해 기뻐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란 사실로 기뻐 하세요.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것입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10:21),*

그것은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기뻐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해본적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가슴에 운행하실때 성령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경험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10:21).*

예수께서 이 단순한 사람들을 쳐다 보십니다. 주께서 그들이 말할때 그들의 감격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 주님, 너무나 훌륭했어요. 오,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 주님이 보셨어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 그것 참 잘되었군, 그러나 이러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은 하늘 나라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후 주님이 말씀 하시기를 “오, 그것 참 훌륭하군, 이 단순한 사람들을 좀 보렴,”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또한 관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즐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단순한 사람이라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나를 단순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복잡한 사람이 싫습니다.

우리교회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번은 내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 그저께 ‘안녕 하십니까?’ 라고 하셨는데 무슨 참뜻이 있습니까?” 내가 안녕 하세요 라고 하면 안녕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뜻도 없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이 없어요. 나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거나 복잡한것을 말하거나 진짜 뜻을 숨기는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뜻한것을 말하고 내가 말한것을 뜻합니다. 나는 이런 애매 모호한것을 말해서 이것을 말하고 진짜로는 저것을 뜻할 정도로 똑똑하지가 못합니다. 당신은 내 의미를 몰라. 그것을 분별할때까지 연구해서 내가 말한것의 숨은 의미를 찾으려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분이 아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것은 비극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이걸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성경을 영적인 의미로 풀면 그 본뜻을 잃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것을 그가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뜻하신것을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을수 있으니 신뢰하십시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즐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 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후에 주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10:22):*

그것은 대단한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10:22).*

예수께서 아버지께 대한 진리를 계시한 사람외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에게로 올자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다면 감사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중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10:23):*

당신이 보는것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같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것이 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의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10:24).*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당신이 가진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진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줍니다.

“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거리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10:25-37).

당신의 이웃이 누구 입니까?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십시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갑자기 외부 사람을 이야기의 영웅으로 만드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시다. 누가 그를 도와 주었습니까? 미움을 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의 영웅이 됩니다. 그들이 인종적인 차별을 심하게 하는 사람을 영웅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드리라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10:38),

그것은 참 재미있는 문구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여러번 사용합니다. 새 장면을 소개할때 마다 그는 통상 “이 때에 (it came to pass)” 라는 문구를 사용 하였는데 그걸 발견 하셨나요? 그것은 누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문구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10:38-39).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에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동네 이름을 밝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매의 이름도 더 이상 마리아와 마르다 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다니 동네의 나사로의 여 동생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인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을 준비 하느라고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 큰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다니시는 걸 기억하실 줄 압니다. 여기에 적어도 70 명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두 명씩 동리마다 주님보다 더 앞서 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오는것을 상상좀 해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40-42).*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발아래 앉아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일에 애씁니다. 일하는데 바쁘고 걱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앞에 앉아 배우는것을 잊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일에 너무 빠져서 예수의 발앞에 앉아 예배할 시간 조차도 없습니다.

다음에 11장과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축복하실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인 아주머니와 찰리 아저씨에게 무얼 해드릴까바빠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의 발앞에 앉아 예배하고 배움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성령안에서 그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되기 쉬운 때입니다.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서 선한 마리아가 되는것을 배울때까지 선한 마르다가 될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되도록 시간을 보내는것이 더 좋습니다. 이 번주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며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